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

윤 대통령, 전북서 민생토론회 개최...지역 주민 등 80여명 참석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 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한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김제·장수에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및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확대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또 우등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과기장관 유상임 지명...차관급 3명 임명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남형기



유상임 후보자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책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

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으로 제 21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태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끌어낼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시작부터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다.

남 차장 역시 현 정부 출범부터 국정운영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정책을 조율한 경험을 갖췄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인터뷰 - 한동훈

“호남보수가 국가 번영의 기틀 호남인의 삶 이상향 시키겠다”

“정권재창출 기반 마련”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합심해서 호남의 삶을 이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는 18일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건국 당시부터 호남의 보수는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촌 김성수 같은 호남 보수의 선각자들이 앞장서서 찬성해 주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광양제철소, 여수 정유산업 등이 산업화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망월동이 아닌 호남의 산업단지를 찾아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8일 서울 모처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동훈 '시작점프' 제공>

무엇보다도 한 후보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이 주신 권력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열망이고, 그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한동훈이다”면서 “지난 총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당의 민낯을 들여다보았고, 부족한 점을 보았다. 제가 당 대표가 되어 보수 혁신과 재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심판받았다. 그런데 지난 세 달 동안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리끼리 서로를 위로하기에 바빴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는 “저는 민심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두려워하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는 변화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자 반드시 변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저와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윤 대통령과는 이견이 있더라도 토론하며 결국 정답을 찾아냈다. 늘 그랬듯 이제 자주 만나 받고 함께 토론하며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6개월 전의 문자 5개가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나온다?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무모한 공작이나 기획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대통령실에 부답이 될 이와 같은 음모론적 자해 정치는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당권 주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전 없는 전당대회라는 비판에 대해 “먼저 이유 여부를 따져보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네거티브나 인신공격이 거세지다 못해 이제는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하려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실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是我们 당의 변화와 보수의 재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당정 관계, 그리고 외연 확장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것이 일방적인 공격에도 제가 최대한 참고 있는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광주일보·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